

예금보험료를 인상 예고… ‘비용 증가’ 2금융권 중심 긴장감

2028년부터 새 예보료를 적용
금융권-예보, 민관합동 TF 가동
업권·전문가 논의, 예보료를 결정
업계 “저축은행, 이미 은행의 5배
다시 인상시 체감부담 커” 반발

금융권의 예금보험료를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2028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예보료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업권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외부 연구용역에서는 은행부터 보험·저축은행까지 전 업권의 예보료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제시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인상 폭이 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용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금융권 예보료를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보는 최근 한국금융학회에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를 재산정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계량모형을 활용해 각 업권의 예보료를 적정 수치를 도출했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뉴스시

예보의 외부 연구용역 계량모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현행 0.40%에서 0.54%,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인상하는 안이다. 그 외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은행은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다.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매년 예보에 예금보험료와 예보채상환 특별기여금을 납부한다. 예보료는 매년 예금잔액(보험사는 책임준비금)에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특별기여금은 별

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추가 산정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수치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 참고용”이라며 “최종 예보료율은 향후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가 예보료를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데다 내년 예보채상환 특별기여금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예보채상환 특별기여금은 금융회사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 자

금을 상환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실제 예보 측은 내년에 특별기여금 종료되는 만큼 이번 예보료를 인상이 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2금융권은 특별기여금이 종료돼도 이번 요율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예금 등을 기준으로 예보에 납부하는 비용인 만큼 요율이 올라가면 금융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것.

보험사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자본과 수익성 관리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예보료까지 크게 늘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상품 가격과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손보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연구용역안대로라면 예보료율이 0.15%에서 0.50%로 뛰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2023년 도입된 IFRS17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구조 변화를 현재 연구모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보험사의 실제 부실 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요율을 크게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

장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에도 업권 중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 왔는데, 이번에도 0.54%로 가장 높은 요율이 산정됐다. 0.54%면 예금자보호법상의 예보료를 상한선인 0.5%도 초과하는 범위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0.40%)은 이미 은행(0.08%)의 다섯 배에 달하는 최고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인상하는 것이어서 체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기여금 종료로 부담이 완화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료가 특별기여금의 네 배라 다른 업권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예보료는 규정상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도 없어 고스란히 손익으로 감당해야 하는 만큼, 남은 TF 논의 과정에서 업권별 실질적인 부담 구조의 차이가 충분히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예보는 올해 연말까지 업권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예보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원화값 두달만에 11% 급등 ‘나홀로 강세’

원·달러 환율 1386.1원 주간 마감
수출기업 외화 매도, 금리인상 영향
엔화·유로화 대비해서 9%대 상승

‘역대급 약세’를 지속하던 원화값이 최근 급등했다. 지난 7월 초 달러당 1560원 수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1380원까지 내리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값은 2개월 만에 9~11% 올랐다. 수출기업들의 외화 매도가 이어지면서 2분기 환율 상승의 주 요인이었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됐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면서 원화 강세를 부추긴 영향이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86.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종가보다 3.7원 올랐지만, 3거래일 연속으로 1380원대에 거래되며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했다.

지난 7월 2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55.8원을 기록했다. 최근 환율과 비교

하면 달러화 대비 원화값은 약 8주 만에 10.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엔화 대비 원화값은 약 9.2%, 위안화 대비 원화값은 약 10.2% 올랐다. 유로화 대비로는 약 9% 올랐다.

최근 원화값이 급등한 배경은 수출기업들의 달러가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는 것이 꼽힌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까지 국내 수출기업의 누적 수출액은 5952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3분기 내에 지난해 총 수출규모인 7097억달러를 넘길 것이라 전망도 있다. 올해 1~7월 누적 무역흑자는 1680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341억달러 증가한 규모다.

지난 7월 금리인상 이후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한국은행과 미 연준의 금리 전망이 엇갈린 것도 원화값이 강세인 이유다.

한은은 지난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미 연준은 7월 금리를 동결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소 잦아들었으며, 고용 시장도 빠르게 얼어붙어서다. 한·미 양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차도 1.0%p로 줄었다.

최근에는 한·미 양국 중앙은행의 금리차가 더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내 경제지표 악화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은은 오는 27일 개최하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주요 기업들의 달러 환전 움직임이 축소하고 있고, 미국 내 불확실성도 확대하고 있어서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움직임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한·미 금리 역전폭 축소가 이어진 가운데 수출호조로 구조적 수급요건도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차주당 신규 가계대출액 3년여 만에 최소

한은,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차주당 신규취급 3414만원, 3.6%↓
40대 583만원 줄어 감소폭 가장 커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올해 2분기 대출자 한 명이 새로 빌린 가계대출 금액이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2000만원 넘게 줄었지만 기존 대출을 포함한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79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14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28만원(3.6%) 감소했다.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은 금액이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신규취급액이 3588만원으로 전분기보다 583만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30대도 4908만원으로 274만원 감소했다. 반면 20대는 2056만원으로 260만원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780만원으로 193만원 감소했다. 서울은 4818만원에서 4347

만원으로 471만원 줄어 2023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동남권도 193만원, 충청권은 110만원 감소했다. 호남권은 113만원 증가한 2871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상호금융과 신탁,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차주당 신규취급액은 2791만원으로 한 분기 만에 1439만원 급감했다. 반면 은행권은 342만원 늘어난 5013만원이었다.

한은은 전체 신규취급액 감소에 대해 “금융권의 대출관리 강화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억 829만원으로 전분기보다 2110만원(9.2%) 감소했다. 2024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도 1억4535만원으로 577만원 줄었다. 신용대출은 1970만원으로 47만원 증가했다.

주담대 감소는 주택 구매 수요가 많은 30~40대에서 집중됐다. 40대의 차주당 신규주담대는 2억977만원으로 3537만원 줄었고, 30대도 2억6358만원으로 2632만원 감소했다.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1281만원, 1069만원 줄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GS건설, 기후위기 대응 ‘미래형 주거’ 연구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 공동
거주자 건강·안전위한 솔루션 초점

GS건설이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 등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주거 솔루션 연구에 나섰다.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Carlo Ratti)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Carlo Ratti Associati)와 함께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과 CRA는 공동으로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주요 기후 변수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주거환경을 분석하고, 여기에 CRA의 데이터 분석 및 센서 기반 설계 역량과 GS건설의 주택 시공·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GS건설은 이번 CRA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형 주거 개념을 도출했다. GS건설은 현재는 개념 단계인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에



CRA와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 공동 연구에 따른 솔루션 예시 이미지. /GS건설

대한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거제·통영 수해 복구에 1.6억 상당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적십자사 공동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1억6000만원 규모의 성금과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추진됐다. 피해가 큰 거제시와 통영시에 각각 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6000만원 상당의 생수 12만 병을 지원한다. 성금과 생수는 피해 주민의 생활 지원과 지역 복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복구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으로 구성된 ‘MG따숨봉사단’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거제 지역 아파트를 찾아 지하 주차장에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고 배수 작업을 돕는 등 현장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과 현장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